



자이씨 '스노스탑'

# “플라스틱 띠 5개면 충분” ... 초간편 스노체인

위어잉- 바퀴가 헛돌면서 차가 미끄러진다. 가속페달을 밟아도 소리만 커지고 점차 제동력이 떨어진다. 겨울철 눈길, 빙판길에서는 타이어가 순간적으로 미끄러질 수 있어 아무리 노련한 운전자도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스노체인 등 월동 장비로 대비하는 게 최선이지만 장비 설치·보관이 까다로워 제대로 준비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플라스틱 사출 성형업체인 자이씨는 지난해 11월 자동차용 간편 눈길 안전용품인 스노스탑(SNO-STOP)을 내놨다. 탄성이 있는 플라스틱 띠를 자동차 바퀴에 둘러싸는 방식이다. 기존 제품보다 탈부착이 쉽고 보관이 편리해 주목받았다. 장영현 자이씨 대표는 “지난해 대구 엑스코에서 제품을 처음 공개했을 때 준비한 시제품 200여 세트가 동이 났다”며 “올해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판매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퀴 사이에 넣고 묶으면 끝 스노스탑은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는 제품이다. 크기만 다를 뿐 모양과 사용법은 전선 등을 묶는 케이블 타이와 비슷하다. 차량 휠 사이



장영현 자이씨 대표가 사용이 간편한 스노스탑(SNO-STOP)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민하 기자

**특허기술로 접지력 높아  
중·대형 해외시장도 공략  
특수차량 제외 전 차종 가능  
여성·초보운전자도 간편 사용  
올해 매출 50% ↑ 목표**

에 넣어 두른 뒤 한쪽 끝을 다른 쪽 고리에 걸기만 하면 된다. 탄성이 있는 특수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

돼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전체 길이는 84cm로 버스 트럭 등 대형 특수차량을 제외한 거의 모든 차종에 쓸 수 있다. 장 대표는 “여성이나 초보 운전자도 쉽게 쓸 수 있을 만큼 탈부착이 간단하다”며 “바퀴 하나에 스노스탑 4-5개 정도면 기존 스노체인에 비금가는 제동 성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스노스탑에는 다양한 특허기술이 적용됐다. 접지력을 높인 특허 설계가 핵심이다. 타이어나 달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매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스페인트-스크린-스-스탑(S-PAINT) (042)381-3339 △지오아이타-ZBIKE (042)471-2777 △고려도토-깨끗한 독배기 ‘하이라이트’ (055)355-1679 △지이씨-비상용 스노체인 ‘SNO-STOP’ (062)955-4895

제품 안쪽에 좁쌀만 한 돌기가 있다. 주행 시 돌기 부분이 타이어나 박혀 밀착력을 끌어올린다. 바깥면은 울퉁불퉁한 돌출부에 일정한 변화를 줘 접지력을 개선했다. 내구 수명은 일반도로 주행거리 기준으로 약 80km다.

◆독자 브랜드 제품으로 승부 장 대표는 1990년 초 공장 생산관리 직을 시작으로 플라스틱 사출·성형 업계에서 20년 이상 전배가 고했다. 2009년 회사를 세우고 냉장고 내부

칸막이, 세탁기 세제통 등 생활가전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부품을 주로 생산했다. 생산품목만 80여 개에 달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에 납품했지만 생산공정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면서 경영이 어려워졌다. 20여 명에 달하던 직원도 절반 넘게 줄었다. 장 대표는 독자 브랜드 생산으로 승부를 걸기로 결심했다. 평소 아이디어를 기록해둔 노트를 꺼내 들었다. 그중 생산 단계가 복잡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이 있는 것을 추려냈다. 스노스탑은 장 대표가 아이디어 노트에서 꺼낸 첫 제품이다.

◆신제품 3-4개 연내 상용화 자이씨의 올해 목표 매출은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15억원 수준이다. 장 대표는 “스노스탑은 계절성이 있는 제품이어서 본격적인 매출은 하반기부터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의 대형 유통업체와 제품 공급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노스탑 외에 연내 3-4개의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차량용 LED(발광다이오드) 간편 삼각대, 용종 절제용 의료기기(스네어), 금형 냉각수 점검기 등이다.

광주=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 특히 빗장 풀리는 타미플루 복제약만 80여개 나온다

올 8월 ‘인산염 특허’ 만료 약값도 30% 이상 떨어져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사진)의 특허가 오는 8월 만료돼 복제약이 대거 출시된다. 그동안 독감이 유행할 때마다 공급 대란 사태를 빚었지만 앞으로는 낮은 가격으로 다양한 독감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웅제약 등 국내 제약사 34곳이 80여 개 타미플루 복제약의 품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996년 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가 개발하고 스위스 제약사 료수가 판매하는 타미플루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독감 바이러스 치료제다.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연간 2조원 어치 이상 팔리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IMS에 따르면 타미플루는 지난해 한국에서만 매출 59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95% 증가했다. 작년 2월 한미약품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타미플루 복제약인 한미플루가 148억원어치 팔렸지만 여전히 타미플루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 타미플루 물질 특허 기간은 작년 초 끝났으나 약의 안정성을 돕는 염(인산염) 특허는 8월 만료된다. 한미플루는 무염 제품으로 제조돼 특허를 회피했다.

제약업계는 20년 만에 타미플루의 특허 빗장이 풀리면서 연간 700억원 규모인 국내 독감 치료제 시장을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약가제도에 따라 타미플루는 특허가 풀리는 8월부터 1년간 약값이 70%로 인하되고 복제약은 오리지널 약의 59.5%까지 약값을 정할 수 있다. 복제약 출시 1년 후인 내년 8월부터는 오리지널과 복제약 모두 기존 타미플루의 53.55% 수준으로 가격이 내려간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 AI로 신약 후보물질 발굴... 시간·비용 단축

(인공지능)

헬스케어 스타트업 김영훈 파미노젠 대표

파미노젠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약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바이오벤처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수백여 개의 화합물을 조합해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물질을 찾아낸다. 후보물질을 발굴하면 사람에게 시험하기 전 동물에게 투여해 안전성과 효과를 알아보는 전임상 단계에 들어간다. 파미노젠은 전임상 단계 직전까지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영훈 파미노젠 대표(사진)는 “비임상-임상시험은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어렵다”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영역은 초기인 신약후보물질 발굴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미노젠이 자체 개발

한 딥러닝(심층학습)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신약후보물질 발굴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며 “대형 제약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제약사, 벤처기업도 고객사”라고 했다.

김 대표는 분자구조와 화학식을 컴퓨터를 이용해 모델링하고 계산하는 계산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부터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등에서 컴퓨터 모델링

200여개 화합물로 후보 발굴 30여개 신약개발 경험 풍부



인력근 기자 rkim@hankyung.com

을 활용해 항암제, 당뇨병 치료제, 정신질환 치료제 등 30여개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2014년부터는 스승인 노경태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를 도와 분자설계연구소 부소장을 맡기도 했다.

파미노젠은 지난해 6월 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종근당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 열 수석연구원을 영입해 경기 용인에 동지를 틀었다. 그는 3년에 걸쳐 세계 대학, 기업 등 700여곳에서 공개한 특허, 논문 등에서 200여개의 화합물과 2500여 종의 질량 표적 자료를 모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창업한 지 1년도 안 지났지만 비만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등 신약후보물질을 7개나 확보했다.

김 대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후보물질 발굴은 태동 단계로 국내에는 아직 없고 미국에서도 아톰와이즈, 인실리코 메디신, 투사 등 몇몇 업체만 뛰어돌았다”며 “파미노젠이 국내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 SK매직, 대용량 ‘나노테크 정수기’ 출시

SK매직이 다중이용시설용 대용량 나노테크 정수기를 출시했다. 국내 최대 용량인 정수 14L, 냉수 17L, 온수 3.5L을 정수할 수 있다. 물 흐름이 분당 2L 이상이라 빠른 시간

안에 취수가 가능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으로 전기료 격정도 낮다. 두 시간에 10분씩 매일 12번 자동 선으로 코크를 자동 살균하고, 국

내 대용량 정수기 중에서는 유일하게 스테인리스스틸 저수조를 채용해 세균 번식 우려가 적다. 미네랄은 살리고 바이러스, 중금속, 슈퍼박테리아는 걸러주는 나노세라 필터와 지하수의 석회질까지 걸러준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 휴표휴침대, 프리미엄 침구 ‘바로바우’ 내놔

휴표휴침대가 프리미엄 침구류 브랜드인 바로바우(사진)를 출시했다.



휴표휴침대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6층 팝업 매장에서 바로바우 브랜드를 선보였다고 28일 밝혔다. 바로바우는 침대패드(깔개)와 이불, 베개 등으로 구성됐다. 수입 거위털과 모달, 저지, 대나무 추출 섬유 등 다양한 자연소재와 신소재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 관계자는 “휴침대는 장년층 이상 소비자만 좋아한다는 인식이 있어 최근에는 모던한

프리미엄(침대)에 세련된 여러 색상 상의 송진장판을 접목해 2030세대를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표휴침대는 프레임에 열선 및 자연도(원도)백도를 압축해 미장-건조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문혜정 기자 selemoon@hankyung.com

## 노란우산공제 엠 설치하면 영화예매권 드려요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개발한 노란우산공제 엠(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한다. 이번 이벤트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계속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엠을 내려받은 뒤 이벤트 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추첨을 통해 영화예매권 등 장을 2000명에게 준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 BVRF 2017

## KVRF in Busan

# 2017 부산 VR 페스티벌

## BUSAN VR FESTIVAL

2017년 6월 1일(목) - 3일(토) / 3일간 | 벅스코 제2전시장

**VR의 확장-게임, 제조, 의료, 영화·영상 등**

70여개사 250부스 규모, 국내 최대 VR전문 전시회

투자설명회, HTC VIVE-X 국내선발대회 등 글로벌 진출 플랫폼

6개국 50여명 전문가 참여 최고의 네트워킹 기회 콘퍼런스

**전시회 등록방법**

- ▶ 사전등록(무료) : 2017년 5월 31일(수) 마감
- ▶ 홈페이지 사전등록 및 '스마트 벅스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사전등록
- ▶ 자세한 사항은 2017부산VR페스티벌 홈페이지(www.bvrf.kr)를 참고하세요.
- ▶ 현장등록 : 일반 5,000원 / 학생 3,000원

**콘퍼런스 등록방법**

- ▶ 행사 당일 현장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등록(선착순)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자세한 사항은 부산VR페스티벌 홈페이지(www.bvrf.kr)를 참고하세요.

주최 : 한국경제신문, 중소기업중앙회, nipa, 부산광역시, 주권 : 부산광역시, KAN, bexco, KCAPS, KACA, UNOCI, 7&7

문의 : 2017부산VR페스티벌 콘퍼런스 사무국 Tel. 051-740-7800 / e-mail. bvrf2017@naver.com / URL. www.bvrf.kr